

자자석 박사의 불교공부기대



변성성불론(變性成佛論)

여성에 대한 불교운동가들의 관심은 매우 지속적으로 전개된다. 그리고 관심의 핵심은 여성도 성불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32상 내지 5장설에 의해 여성이 성불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흐름속에서도 끊임없이 여성들에게 성불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여기서 등장한 하나의 사상적 흐름이 변성성불사상이다. 변성성불사상은 여성의 육신을 가지고는 성불할 수 없지만 남성의 몸을 얻은 다음에는 성불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즉 여성이 선업 공덕을 지으면 다음 세상에서는 남자의 몸을 받게 되며, 그때 비로소 성불할 수 있다는 논리다. 윤회사상과 결부되어 활로를 개척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적 흐름은 초기대승불교에 오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대정신수대장경 556경인 <철녀경>부터 574경인 <견고경>까지는 두 세가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변성남자를 설하고 있다. 이중에서 <철녀경>은 구류국의 바라문이 일곱 딸의 미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부처님은 '사람의 몸은 생로병사에 떨어지므로 미모는 오래가지 않는 것'이라 설한다. 이어서 과거세에 바라

의 차별을 보는 것은 미망에 불과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대승의 수행자는 남녀의 차별에 사로잡히지 말고, 무집착 공의 입장에서 평등하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의거한다면 구태여 남녀차별의 문제가 대두될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전에서 견의보살은 구역천자에게 '어떠한 공덕으로 여성의 몸을 바랄 수 있는가?'하는 질문에 대해 '대승에 나아가는 사람은 남녀의 차별을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체지의 마음은 3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분별이 있기 때문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 그대의 질문에 '옛부터 보살을 섬기는 마음에 첨곡(嗔曲)·아침과 왜곡이 없어야 한다'고 대답한다. 어떻게 섬기는가 하면 '세존을 섬기듯 한다'. 어떻게 해야 마음에 첨곡함이 없는가하면 '신구의 3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여인의 마음에 첨곡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어떻게 여인의 몸을 바꾸는가 하면 완성하는 것과 같다. 어떻게 하는 것이 완성함과 같은 것인가 하면 '바뀔(轉)'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천자가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선남자여, 일체의 존재는 가운데는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바뀌는 것도 없다. 모든 존재는 한 맛이다. 법성(法性)의 맛을 말하는

“여성은 남성몸 얻은후에 성불 가능” 이전 성차별 사상보다 유연·진일보

나국 왕의 일곱 여인이 가삼불의 가르침을 듣고 보리심을 일으켜 미래에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게 된다. 수기를 받은 일곱 여성들은 기뻐하공으로 뛰어올랐다가 땅으로 내려오는 사이에 '모두 남자로 바뀌었으며, 그 즉시 다시는 퇴보하지 않는 경지를 얻었다'고 한다. 여기서 불퇴전의 경지에 들어가기 이전에 여성이 남성의 몸을 얻게되는 장면이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장에서 언급된 수기를 받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한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전여선경>에서는 "깊은 마음으로 깨달음을 구할 것, 오만한 마음을 제거하고 속이고자 하는 마음을 없앨 것, 신구의 3업을 청정하게 하는 심선계를 여의는 것" 등을 말하며, <현수경>에서는 "일체지의 마음을 일으켜 무수한 공덕을 짓는 것, 부처님에게만 의지하고 있던 것을 믿지 않는 것, 심선계를 지키는 것, 보시의 지계에 철저하여 스스로 청정함을 지키는 것, 항상 자비스러우며 일체의 사람과 물건에 대한 탐욕을 버리는 것" 등을 설하고 있다. 공사상을 핵심교리로 삼고 있는 반야경 계통에서도 변성성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수능엄삼매경>은 공사상의 입장에 서서 남녀

것이다. 선남자여, 나는 원하는 바에 따라서 여인의 몸을 갖는다. 만약 나의 몸을 남자의 몸이 되게 하더라도 여인의 특징을 파괴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라. 이것은 남자, 이것은 여자라 하는 것은 모두 잘못된 생각이다.'라 대화하고 있다. 남녀의 차별관을 버리라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서는 '아나답야, 이 모든 천녀들은 목숨을 마친 뒤에 여인의 몸을 바꾸리라'고 선언하고 있다. 공사상에 입각해 가장 실용적인 방안을 제시했으면서도 당시의 시대조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남녀차별과 여성의 성불을 위한 고민이 진일보하고 있다는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고민들이 변성성불사상이 출현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보아야 한다. 그러나 여인의 몸을 버리고 남자의 몸을 얻은 뒤에 성불한다는 것은 아직 차별적인 관념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전 사상 보다 매우 유연해지고 있으며, 동시에 성불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본지 삼임논설위원·불교학 박사>

부처님께서 도를 깨닫고 나서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고 크게 감동을 하셨지요. 도를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일체 중생이 한 명도 빠짐없이 본래 부처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중생의 탈을 쓰고 있을까. 그 탈을 벗게 하려고 부처님께서 45년간 불철주야 법을 설하셨습니다.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까닭으로,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법을, 깨달음을 얻게 하고자 오셨다 했습니다. 일체중생에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보이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다.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깨달음을 깨닫게 하고자 이 세상에 오셨다.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깨달음을 듣게 하고자 오셨다는 겁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고, 지혜의 종교입니다. 불교를 오래 믿으면 중생 스스로가 지혜로워져서 부처님과 같아집니다.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판단이 명석해 지는 겁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나가는 명석함을 갖기 위해서, 판단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중생들은 부처님을 따라 배우고자 정진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실로 믿어야 하고, 그 가르침을 행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부처님말씀이 쓰여진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고 마음을 두는데 방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불성적인 자기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성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자신의 삶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중생심에 머물러있어 함부로 살아서는 안됩니다. 그

고요함 즐길줄 모르면 불법 알기 어렵습니다

없으면 절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한번 절을 함으로써 아직은 멀었다 그 뜻입니다. 또한 번 절하고 그것도 아니다, 한번더 절하고 그것도 아니다... 3번매를 했어요. 그러나 과연 그 가운데 진실된 절이 3번이나 있을까 말까 하다는 얘기에요. 금을 캐러 금광에 들어간 사람이 삼일을 하고는 흙 집어 던지



<4월 26일 불교TV 새 법당 무상사법회에서 무진장 스님은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고 겸손하게 하심하며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어떻게 사는게 진정한 삶인가 자신 바로 볼때 지혜의 길 열려

탈기에 늘 자기탐구에 힘써야 하지요. 남의 일에 관심 갖고 이리저리 저러쿵 할 때가 아닙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탐구해 보세요. 부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가장 평범한, 보통'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보통사람에 미치지 못하거나 보통을 지나친 사람들이예요. '가장 평범하고 보통사람인' 부처님의 성품을 닦기 위해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 앞에서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부처님을 닮겠다는 건가요? 아파트에 당원회 기를, 남편의 승진을, 또는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불기를 더 바라고 있지 않나요? 왜 절에 다닙니까? 우리의 정신세계를 정화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냐 라고 나는 말합니다. 법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는 것이 법입니다. 불교에서 중도를 말하지요. 가운데 중(中), 길 도(道)를 쓰는데 이 중(中)자가 '맛' 중자입니다. '이치에 딱 들어맞는다'라는 뜻이지요. 화상을 쏘아 피쳐에 맞으면 적중했다 하잖아요. 들어맞다는 뜻이지요. 불교는 '비판주의적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에 보면 없을 무(無)가 많이 나오입니다. 그러나 없다는 소리가 아니지요. 아니라는 소리도 있다는 겁니다. <반야심경>의 무(無)는 전부가 비판입니다. 우리가 절을 하려다도 비판정신이

니다. 왜 집어 던질까요? 이것은 아니다 라는 뜻이지요. 뭐가 아니라, 금이 아니다 이거지요. 또한번 삼일을 하고는 흙 집어던지면, 그것도 아니라는 뜻이지요.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그것도 아니다... 뭐가 아니라, 열반에 이르기까지 계속 비판정신을 가지고 탐구하라는 뜻입니다. <유마경>에 꿈은 마음을 쓰는 것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의 성불시에 왜곡된 말을 하지 않는 중생은 내세에 극락을 간다고 했습니다. 또 깊고 깊은 마음속에 부처의 보살이 있다고 했고 보리심을 내면 극락에 태어난다 했습니다. 꿈은 마음과 깊은 마음, 보리심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공덕을 구족하고 진실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됩니다. 바둑하는 사람이 한 돌 한 돌 정성을 다해 신중하게 놓아 가듯,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인가 생각하며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서양의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세계는 크게 세가지 점에서 대량살상이 자행될 우려가

물은 생명을 길러내지만

있다고 했습니다. 전쟁으로 핵무기가 터져 대량으로 죽거나, 공해에 의한 원만한 인류의 대량 살상이 올 수 있다 했습니다. 가치관 혼란에서 오는 정신적인 대량 살상도 이야기 했어요. 외부적인 환경의 오염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오염되고 있는 것을 경계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속에서 살고 있는가요. 정신적으로 황폐한 시대, 암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오염이 심각합니다. 시민정신은 갈수록 약화일로에 놓여있어요. 인성이 대단히 잔인해져 가고 있어요. 천박해져 갑니다. 시민의식은 너도 살고 나도 살자는 공생의식인데, 천민의식은 세상 사람 다 죽어도 나만 살고 싶다는 것이예요. 이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가족을 부처님처럼...

<p>대한불교조계종</p> <p>전 봉 사</p> <p>주 지 정영도 부주 지 홍 현 총 무 철 현</p> <p>대중일동</p> <p>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6 TEL 033)682-8100 FAX 033)682-5994</p>	<p>대한불교조계종</p> <p>신 흥 사</p> <p>회 주 무산 오현 주 지 마근</p> <p>대중일동</p> <p>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 TEL 033)636-7393</p>	<p>사자산 적멸보궁</p> <p>법 흥 사</p> <p>주 지 도완</p> <p>사부대중일동</p> <p>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 422-1 TEL 033)374-9178 FAX 033)374-9176</p>	<p>대한불교조계종</p> <p>발왕산 휴휴암</p> <p>소위경전 금강경 교계최초 목판불사증</p> <p>주 지 도호</p> <p>사부대중일동</p> <p>강원도 왕산면 대기3리 2107 TEL 033)562-7196</p>	<p>대한불교조계종</p> <p>두타산 대덕사</p> <p>주 지 백암</p> <p>사부대중일동</p> <p>강원도 동해사 대구동 174-2번지 TEL 033)521-7652 TEL 033)521-9237</p>
--	--	--	---	---



무진장스님

(조계사 한주)

지상 백고좌

김재일 법사가 본 무진장스님

평생 일선에서 포교...여름 승복 겨울에도 입어

무진장스님의 인연은 70년대 초 원주군법당 수계법회때 시작되어 제대 후 75년 조계사에서 청년회 활동으로 만남이 이어졌다. 이후 경전공부모임인 동산반야회를 창립하면서 스님을 법주로 추대, 어언 30년을 가까이 모셨다.

스님은 사찰주지를 서로 하려는 풍토에서 주지직 한번 맡지 않고, '포교'라는 개념조차 생소할때부터 대중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선포교사로서 활동해 왔다.

무진장 스님은 신도들이 사주거나 맞춰주는 승복을 평생 입어본 적이 없다. 수행하는 신도가 사주는 옷을 합부로 입어서는 안 된다고 늘 말씀하신다. 여름에 입은 얇은 승복을 겨울에도 입으신다. 승복도 딱 3벌이다. 수도승은 3벌 이상 갖는 것을 사치로 여기기 때문이다.

평소 스님은 신도에게서 선물 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신다. 또 수도승은 머리에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것은 좋지 않으며, 모자를 갖는 것도 부처님의 무소유 정신에 어긋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본분사에 철저하신 분이다. 그래서 스님은 73세 라는 고령에도 자가를 하나 없이 어디 갈 데가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

스님은 조계사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셨다. 서울의 변화가에서 생활하고 있는 셈이지만 조계사 주변의 다방 같은 곳은 일체 가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스님은 또 틈만 나면 근처 책방에 가서 새로 나온 불서를 눈여겨 보고 신간 구입하는 일을 즐겨하신다. 법회 등에서 거마비를 받으면 문방 책 구입비로 쓰신다. 스님 방인지 책방인지 모를 정도다. 특히 천태학 분야의 책이 많다.



◇동산반야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한 법회에서 무진장스님(왼쪽에서 두번째)이 김재일 동산반야회장(왼쪽) 등과 나란히 서 있다.

한국의 불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천태법화사상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다.

스님은 1956년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태국 와트 벤자 마보팟 사원에서 남방 불교를, 일본 경도불교대학원에서 천태교학을 연구했다. 조계종 포교원장을 지냈다.

그 공을 내세우지 않지요

해야할 일이 자기를 바로 볼 줄 아는 지혜를 기르는 일입니다. 남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다른 것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조국을 보고, 그리고 국제사회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흔히 세계인, 세계인 하는데 세계인이라고 말로는 쉽지만 진실한 세계인이 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는 탐 진 치가 더욱더 극성을 부리기에 종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불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가 오늘의 혼탁한 사회를 정화해 나가야할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교가 편파적이고 격합니다. 자기만 최고로 알고 양보하거나 남을 살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외골 외골 풀는 뜨거운 가마솥 같아요.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 20세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느 분야나 물질위주로 생각해 왔습니다. 탐욕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관념이 21세기까지 이어져서는 안됩니다. 오늘의 시대를 해결하기 위해 서양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 왔을까요. 그들은 존재론, 구조주의와 같은 사상들이 오늘의 시대를 대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존주의입니다. 그러한 존재론을 가지고 현대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중국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도에 근거했어. 도가 오늘의 시대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면 불교사상은 어떠한가요. 법, 즉 다르마에 의해서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야심경>에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란 말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색(色)이란 것은 현상적 세계를 말하고, 공(空)이라 정신세계를 뜻합니다. 이 현상적 세계와 이상적 세계를 합친것이 인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어떠한가요?

현상적이라는 말은 1차원의 세계입니다. 관세, 재물, 현상적인 이익 등... 거기에 매몰되면 현실주의의 자입니다. 정신적인 것은 2차원의 세계입니다. 고귀한 정신주의적인 태도지요. 그런데 극단적인 이상주의적 태도도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현실세계와 대화가 없어요. 자기만이 정당하고 자기만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련하게 보고, 망상·환상 주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렇다면 21세기 사회는 어떠한가요. 지도원리가 돼야 합니다.

이 3차원의 반야사상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조사목>에서 말하기를, 이 세상사람들이 하루종일 반야를 외워도 자성반야를 모르면, 말을 못하고 잊되 배고픈 것과 같다고 했어요. 입으로만 말하는 법은 배부를 수가 없지요. 입으로만 진리를 말하면 만겁의 세월이 흘러도 견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야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도록 우리 불자들로부터 열심히 수행정진해야 합니다.

3배·108배·3천배 해도

비관정신 없으면 무의미

"마음이 어리석은즉 사바세계요, 마음을 깨달은 즉 이상세계다. 마음이 샅권즉 사바세계요, 마음을 바로하니 이상세계다." <열반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누구나 평등하게 태어나는 것이지만,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심성이 천박해 질 수도 있고 고귀해 질 수도 있습니다. 지혜롭게도 되고 마냥 어리석은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은 우리의 심성에서 나옵니다. 천당 지옥이 우리들의 심성가운데 있어. 극악이나 천당이니 지옥이니 하는 것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안다면 늘 행복하고 안락할 수 있습니다.

성인들은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가장 으뜸가는 태도는 물처럼 사는 거라고 말합니다. 물이라는 것은 대단히 유연합니다. 내가 서 있는 발바닥 밑 지하를 흐르고 있지만 그 물은 만물을 길러냅니다. 모든 생명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가장 낮은 곳을 흐르지만 만물을 길러내는 물처럼 유연하면서 또 겸손하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물은 생명을 길러내지만 내가 기른다 공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나는 불자 여러분들이 물처럼 겸손하며 포용력 있게, 그리고 고요를 즐기는 사람으로, 마음을 잘 쓰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고요한 시간을 갖기 어려워요. 고요를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도 알기 어렵습니다. 물이 고요할 때는 하늘의 달 그림자가 선명히 나타나지만 물이 흔들리면 달 그림자는 어지러져 보인니다.

판타지적이에요. 마음이 흔들리면 객관적인 것을 판단하는 지혜가 나올 수 없습니. 마음이 고요할 때만 판단이 바로 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리=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심산스님의 스님이야기

해중석 스님

바다 가운데 솟아 있는 바위는 얼마나 많은 파도와 부딪쳐야 돌덩어리 같아. 둥근 것은 고사하고 하루도 충돌의 도전을 없는 날이 없는 그 바위는 얼마나 고단할까. 오늘도 다시 추위 여행을 떠나 불일이다.



그림·문병성

교를게도 이 스님이 반장까지 되어 반의 규칙을 이야기 하는데, 법랍이 더 많았던 나로서는 심기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해중석 스님과는 편지 않은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막상 만나 같이 공부할 하면서 서로 동화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거침없 해중석 스님도 시간이 흐르면서 해풍과 파도에 풍동그러진 바위처럼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다. 물론 거기에는 도반들의 애정 어린 질책의 파도가 크게 작용했다. 서로 부딪치기도 많이 했고 조연과 타협을 무수히 한 결과였다. 그래서 졸업에 임박해서는 분위기가 많이 부드러워졌다. 사실 알고 보면 심성이 약화되어 가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내면세계가 너무 부드러워서 남에게는 거칠게 어필한다는 것이 어울릴 것 같다. 때때로 어떤 상황에서 벗어날 때 영락없는 개구쟁이 어린 아이 같았다. 얼마나 천진스러운가 하면 사발을 하고 난 뒤에 법사가 지라던 환마리가 보기 싫다고 연색을 했다. 그런데 그 짧은 머리가 하루 자고 나면

길고, 하루 자고 나면 자라나기 때문에 염색이 소용없는 일이었지만 전혀 아랑곳 하지 않을 만큼 해중석 스님은 순박했다.

그런 순박함 만큼이나 신룡한 것은 은산스님에 대한 지극한 마음이다. 시간만 나면 방장스님 방에 가서 청소도 하고 글씨를 쓰실 때에는 먹을 갈아드리는 정성을 다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건강을 걱정하고 맑은 헤드리고자 하는 모습은 지극하기 이를 데 없었다. 강원에 있을 때도 유난스러웠지만 몇 년 전 방장스님께서 입원하시니 동안에도 앞장서서 병실을 지켰다. 사실이지 피를 나는 자식도 그렇게 지극하기가 쉽지 않을 터인데 스님은 남다른 효성자였다.

세월이 흘러 강원을 졸업할 때 인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는데, 인도를 두세 번 다녀온 내가 전적으로 인술을 해서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했다. 속소가 정해지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시내로 간식에 필요한 과일을 사러 갔다. 모두 네 명이 택시를 타고 중심가에 내려 가게로 들어가는데 맨 나중에 내린 해중석 스님에게 거지들이 달려붙는 것이다. 해외여행이 처음이던 스님이 당황해서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우리는 가게로 들어가 버리고 해중석 스님의 시야에서 우리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간식거리를 사서 속소

최충우돌 과격하지만 천진·순박

남다른 효성좌...선방 열심히 다녀

로 돌아왔다.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스님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말이다. 참 난감한 일이었다. 그러나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다. 일곱 시간이 지난 후에야 험악한 얼굴로 돌아왔다. 얼마나 놀랐을까하고 그 심정을 생각하면 미안하기 이를 데 없고, 그 성격을 생각하면 어떻게 반응하나 하고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런데 무사히 돌아온 것에 대한 감사로 별 무리 없이 마무리 되었다.

많은 추억을 남기고 강원을 졸업한 후에는 선방으로 정진하려 했다. 천성이 좀 과격하고 무대보이긴 해도 워낙 단순하고 순박한 성격이라 하심하고 정진하면 잘 수행할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선방에서도 바쁜 환경을 수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이다. 통도사라는 문중 안에서의 생활이 전부였던 입장에서 새로운 세상인 선방이 호락호락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강원에 살 때 도반들의 배려가 얼마나 컸었는지도 절실히 느꼈을 일이다. 그러나 고마운 것은 지금도 선방을 다니는 일을 우선적으로 여기는 마음이다. 정진하는 일을 마음에서 잃지 않는 자세가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지금도 월부지 어린 아이 같기도 하고 호기심 많은 사춘기 소년 같기도 하지만, 해중석 스님의 그 순수함이 언젠가는 반드시 깨침으로 꽃 피우리라 기대한다.

■ (사)한나레문화재단 이사장

불기 2547년 부처님오신날 가족을 부처님처럼...

사람 그 삶의 참모습

서세욱 화백의 작품과 선승들의 어록

동양화의 깊이와 현대성이 살아있는 선경 서세욱 화백의 그림과 원효에서 해일에 이르는 선승 21명이 남긴 어록이 만났다.

'보배를 입고 싶거든 가죽 주머니인 육신을 놓아 버려라'
-보조국사 지눌-

'청산을 나를 보고 말 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 가라하세'
-나옹 선사-

'인격이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은 영원한 평안을 얻을 길이 없다'
-만공 선사-

'바로 알고 보면 우리 앞은 자리 선 자리 이데로가 절대의 세계다'
-성철 선사-

사람 그 삶의 참모습 / 도판작품 서세욱 / 값 9,000원

도가와 월종

노장·중도사상을 짧은 글·그림으로 (그림 한쪽에 장자와 노자의 이야기를 한 대목씩 엮은 화문집)

이월종 화백, '도가와 월종' 단행본 출간

선과 악, 사랑과 증오, 쾌락과 고통, 집착과 무관심 등 서로 대립되는 갈등에서 벗어난 평상심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중도(中道)'라 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이 중도를 화두로 안고 4년 전 제주도로 떠난 이월종 화백(58)이 한 권의 책속에 평상심과 중도를 담아냈다. 한 일간지에 연재했던 삽화와 틈틈이 그린 1백편의 그림에 한문학자 이병희 교수(45. 한서대가 노자와 장자에서 발췌한 짙막한 교훈적인 글들을 달아 놓았다.

도가와 월종 / 그림 이월종 / 역 백희 / 값 15,000원

서울시 중로구 청진동 276-1 계진빌딩 503호 전화 02-725-8655 팩스 02-725-4656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행자원 및 납골당 운영

최대 유치원 건립 추진 도량

대구시 남구 봉덕 3동 1301-20
TEL 053)474-8228
FAX 053)472-6268
http://www.tvbuddha.co.kr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재물 생산·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재물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무척운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애동승복 직원일동 -

준추복: 적삼, 조끼, 바지 w160,000; 행방, 바지 w160,000; 두루마기 w140,000; w60,000

가복: 모직(울 50%) 광택; 순면(무늬없는 먹물)

차복: 구김이 없고 세탁이 용이한 재질 A. w130,000 B. w160,000; 마; 모직 w160,000

바지: 리온트; 자미안; 울부

가운: w30,000 ~ 50,000원

※ 장삼, 기사, 미방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가능합니다. ※ 지역 대리점 모집

해동승복 대구 고척대입점 053-741-8131 대구광역시 동구 선린 4동 30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